

제6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특강(40분)

- 2024.9.30(월) 11:00, 반기문평화기념관 -

■ 인사말씀

- 오늘, 제6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에 참여한 63개 대학교, 100명의 대학생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함
 - ‘대자연’의 이혜경 회장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반기문평화기념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했던 곳임
 - 물론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저의 고향에서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되어 매우 기쁘고 저도 대학생 시절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움
 - 특히, 많은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파리기후 변화협정을 이끌어 냈던 제가, 오늘날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정신을 앞장서 실현하겠다는 대학생 여러분과 이곳 ‘반기문평화기념관’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음

■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에 대한 소회

- 돌이켜보면, 2022년 5월 9일,
제1기 개강식을 하면서 이 양성과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으나,
우리 대학생들의 기후 열정을 조금 과소평가
했던 것 같음
 - 1기생 150명, 2·3·4·5기생 각 100명 등
550명의 기후환경리더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그 자체로 놀라움이었고, 저로서도 새롭게
배운 것이 참 많았음
 - 이번 6기 양성과정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결의에 찬 눈빛을 보니
어느 기수 보다 뛰어난 활동을 기대해도
좋겠다는 생각함
 - 선배 기수보다 더 나은 후배 기수,
청출어람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으면서,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힘차게 'Fighting'
한 번 외쳐주시기 바람
- 기후환경과 관련된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함

-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해 가면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 세계 7大 무역 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세계의 문화·예술을 주도하는 문화강국의 칭송을 받고 있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위상을 바꾼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한나라밖에 없고,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임
- 우리나라는 1991년 UN에 가입했는데 5년 후인 1996년에는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했고, 또 5년 후인 2001년에는 유엔 총회 의장국이 되었으며, 또 다시 5년 후인 2006년에는 제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어 2007년부터 10년 간 세계의 평화·개발·인권을 위해 헌신했음
- 올해부터 내년까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안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1996년과 2013년에 이어서 세 번째임

■ 세계시민, 세계시민정신

- 우리가 이루어 낸 이토록 극적인 역사의 반전에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학생, 대한민국의 시민을 넘어 세계의 대학생,
세계의 시민(global citizens)으로 나아가야 함

– 유네스코는 ‘세계시민’을 정의하기를

‘보다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사람’이라고 함

– 지금의 세계는 문명과 문화적으로 국경이 없는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이며,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개별 국가의
국가시민이자 지구촌이라는 세계 국가의
세계시민이 되어야 함

○ 이러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passion)과 함께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
이해와 공감, 즉 온정(compassion)을 갖추는 것임

– 이것이 바로 세계시민정신(global citizenship)임

○ 저는 중주고 3학년이었던 1962년,
‘청소년적십자국제대회’ 프로그램인 ‘VISTA’
(Visit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America)에
한국 대표(4명)로 참가, 워싱턴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John F. Kennedy와 만났었음

- 케네디 대통령은 그 만남에서
“지금 세계는 극경이 없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고 말했었는데,
동서 냉전으로 극경은 닫히고 민족주의가
팽배하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케네디의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었음
- 외교관을 향한 꿈과 목표 설정에 결정적인
영감을 받았고, 오늘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세계시민정신(global citizenship) 정립에
둘도 없는 motive로 작용했음
- 여러분은 전문지식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세계시민정신을 함양하는데에도 힘써야 하고,
그 근본은 인성교육에 있다고 생각함
- 올바른 인성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데, 세계시민
정신을 함양한다는 것은 기대 난망한 일임
- 인성 교육은 충·효·예와 같은 전통적 도덕성과
함께 올바른 역사 인식, 자유민주주의 국가관,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의식, 자긍심과
책임감 등 가치관을 키우는 것임
- 여러분들이 올바른 인성 함양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정신을 체득하기 바라고,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 여정을 긍정적으로
가리켜주는 나침반이 될 것임

■ 제8대 UN사무총장으로서의 召命

○ 이제부터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음

- 2007년부터 10년간 유엔사무총장에
재임하면서 제가 이뤄낸 대표적인 업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2015.12)
시키고 발효(2016.11)시킨 것임

○ 저는 또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많은 진전도 이루었음

- 저의 인사권을 활용해서 유엔 사무국의
고위직에 여성을 다수 등용시켰음
- 특히 저는 2010년에 유엔 사상 최초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를 창설했는데,
이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조직으로 보면
여성가족부와 같은 조직이라고 하겠음
- 여성 지위 향상과 권익신장에 대한 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저의 퇴임 이후, 뉴욕에 있는
국제 비영리단체 ‘Asia Initiative’에서는
‘반기문 여성권익상’(Ban Ki-moon Award For

Women's Empowerment)을 제정하여

2017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음

- 올해에도 지난주(9.25)에 시상식을 개최했고,
뉴욕 출장을 다녀왔음

○ 저는, 여성에 대한 유리 천장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음

- 우리나라 여성의 고등교육 수준은
OECD 최고 수준임에도 유리 천장 지수는
최하위에 놓여 있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우리나라 여성의 창의성과 확장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음

- 22대 국회에 여성 의원의 비율이 20%(60명)에
도달했는데, 좀 더 올라가야 함
- 이번 6기 기후환경리더에 합격한 여학생의
비율이 무려 71%임

■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제가 유엔사무총장에 취임한 2007년은,
UN이 2001년부터 시작한 ‘새천년 개발목표’
MDGs의 목표 시한을 8년 앞둔 때였음

- MDGs는 빈곤퇴치, 초등교육의 보편화, 질병퇴치, 환경보존과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등 8개 목표로 되어 있었고, 2015년까지가 그 시한이었는데,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음
 - 2015년 이후 2030년까지 지구촌의 공동번영을 위해 새로운 목표로써 제시한 것이 SDGs이며,
 - 가난과 기아 종식, 건강과 질병 예방, 교육, 성 평등 등 17개 기본 목표, 169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SDGs는 지금까지 유엔이 제시한 그 어떤 목표보다도 야심차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 목표 시점까지 6년 여 남았지만, SDGs 이행은 매우 미흡함
- 작년 7월, UN이 발표한 ‘SDGs 2023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SDGs 18% 만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음 (15%는 역행, 67%는 정체)
 - 저는 지난 2020년에 반기문재단을 통해서 ‘SDGs 5년의 평가와 향후 10년의 과제’ (Redesign our Future)라는 연구서를 출간하고, SDGs의 쏠 세계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었음

- 특히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2025 SDGs Summit’ 개최를 제의했는데
구테흐스 총장의 업무계획에 이것이
‘2025 Second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로 반영되어 있고,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총회에서
‘Summit of the Future’가 개최된 바 있음
- SDGs의 이행에 차질을 준 요인으로 세계적인
경제난,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사회
지도자들의 의지 부족이 꼽히고 있지만,
- 국제사회는 보다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요인은
81억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파리기후변화협정, 인류의 거대한 도전

- 2007년 1월 1일 유엔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제가 목표로 세운 것 중 특히 중요한 것은,
-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적 규범을 세우는 것이었음
- 기후위기 대응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미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가 걸린 현재의
‘증대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임

- SDGs는 정치적 합의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구속력이 없기에 SDGs 13번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법적 강제력을 갖도록 했고, 그것이 ‘2015 파리기후변화협정’임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6년 11월 발효되고, 2021년부터 이행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증대한 위기 국면을 맞기도 했음
- 2017년, 당시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협정에서 탈퇴했었는데,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 첫날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탈퇴가 재연될 수도 있는데 대하여 정말 큰 우려를 갖고 있기도 함
-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는,
 -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억제하도록 세계 각 국, 전 인류가 함께 노력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zero로 만드는 것, 즉 ‘2050 탄소중립’을 이루어내야 하고,

- 그 초기 단계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탄소 배출을 지구촌 평균으로 43% 감축하자는 것임
- 탄소배출 1위 중국은 2060년에, 2위 미국은 2050년에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약속했는데, 두 국가의 현재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42%임 (중국 : 28%, 미국 : 14%)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했고, 2030년까지의 자발적 탄소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0%로 국제사회에 약속했음
 - 이 약속은 후퇴할 수 없는 법적 의무임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의 발걸음은 구체화·가속화되고 있음
 -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1년 이후 2049년까지는 어떤 정량적인 감축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의 해당 조항(8조 1항)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음

- ‘2030 NDC’만 제시해서는 안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임
-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참가한 나라들은 내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2035 NDC’를 유엔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유엔은 ‘2035 NDC’를 ‘2030 NDC’ 43% 보다 17% 상향시켜서 60% 감축을 권고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2030 NDC’ 40%도 버거운데, ‘2035 NDC’를 60%에 맞출 경우, 산업계와 기업의 반발·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2050 탄소중립’의 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고 그 길로 나가야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함
- 일본의 244개 주요 기업은 ‘2035 NDC’를 75% 이상으로 설정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Back Casting’

(원하는 미래를 먼저 설정하고 역순
시점으로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산업·기업들도
참고해야 함

■ 기후위기의 실상

○ 산업혁명 이래, 세계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 그것은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무제한 사용, 그리고 인간의 탐욕에 의한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에 기반했음

○ 그 결과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오늘날에는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으로 악화 국면임

- 키리바시와 같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고,

-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가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로 바닷물에
잠기고 있어서 보르네오섬 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있음

- 중국의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대도시의 상당 부분이 매년 적게는 3mm,
많게는 10mm 이상 가라앉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의 남용에 있다는 것임
 - 또한 최근 중국·러시아의 폭우, 홍수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폭염·가뭄·대형 산불 등 전례 없는
기후재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도 올 여름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최장·최고의 열대야를 겪었음
-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금세기 내에 6차 대멸종이 오고,
생물종의 70%가 멸종될 수 있다는
기후과학자들의 무서운 경고임
- 5차 대멸종은 6,500만년 전에 있었음
-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것임
- 지구온난화(Earth Warming)에서
지구가열화(Heating)를 넘어,
지금은 지구비등화(Boiling)라고 말함

-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월,
작년의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대비
섭씨 1.45도가 올라서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라고 발표했었음
- 그런데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는 지난 2월, 섭씨 1.52도가
상승해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정한 국제사회의
통제선 섭씨 1.5도가 깨졌다고 발표했음
- 우리 인류는 이제 매일매일, 최악의
기후위기에 놓였다는 과학적 경고임

■ 긍정적 요인들

- '2050 넷제로'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돼가고 있지만, 긍정적인 움직임도 많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까지 탄소중립 기준
연도인 2018년의 7억 2,500만 톤 대비
6억 2,400만 톤으로 14% 이상 줄였음
- EU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즉 탄소국경조정제도 1단계를
작년 10월 1일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 2026년부터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배출 제품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됨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POSCO는
철강 생산에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을 추진중임
- 이제 몇 년 후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글로벌 차원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됨
 -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완전히 중단키로 했고,
 - 미국도 2032년부터 신차 판매의 56%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한다는 정책을 확정했음
 -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2035년부터
내연차 생산을 중단키로 했는데,
내연차를 만들어도 해외시장에 팔 수 없기
때문임
- 친환경경영, 사회적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의미하는 ESG 경영도 기업은 물론
공공 부문에서 내재화·체질화되고 있음
 - 최근 ESG를 ‘깨어있는(woke) 자본주의’라고
부르면서 이에 반대하는 ‘anti-woke’
운동도 벌어지고 있지만, ESG는 갈수록
강화되고 확산될 것임

- 또한 삼성 등 40개 대기업이 ‘2050년까지 제품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했는데, RE100에는 세계적인 대기업 400여 회사가 가입해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RE100은 원전을 배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으로서는 매우 불리함
- 지리적 기후환경적 한계로 인하여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충당하기 불가능함

■ 원전에 대한 글로벌 인식의 변화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저는 오래전부터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왔음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되,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 대책이며, 이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음

- 원전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가장 컸던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최근 ‘원전으로의
회귀’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사실, 원전은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청정 에너지임
 - 전기 1kwh 생산에 풍력은 12g,
태양광은 57g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원전은 10g에 불과함

■ 기후환경리더에 대한 당부의 말씀

- 저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특별하게 당부드림
 - 탄소중립, 결코 쉽지 않고 대단한
각오·담대한 행동이 필요함
- 첫째, 여러분부터 탄소중립의 일상화로
나아가야 함
 - 노자의 도덕경에 ‘천하의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일도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대사 필작어세(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라는 구절이 있음

- 한 장의 종이, 한 등의 전기, 한 방울의 수돗물, 한 그루의 나무도 아끼고,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일은 쉽고 사소한 일일 수 있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어렵고 큰일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림
 - 그리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확산시켜 나가 주시기 바람
- 둘째, 여러분들은 기후환경에 있어서 ‘보통의 신분’이 아니라 ‘특별한 지위’에 있음을 늘 명심하고 특별한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람
-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파수꾼’이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사’이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반기문의 기후전사’가 되었음
 - 제가 없는 곳, 제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과감히 도전하기 바람

- 저는 여러분의 선배 교수에게 늘

“Raise your voice, challenge your leaders!”를 강조해 왔음

○ 셋째, 학업·시험·과제 등 대학생 본연의 활동과 함께 기후환경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져주기 바람

-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은, “성공은 끝이 아니다.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 나아가는 용기”라고 말했었음

(Success is not final, failure is not fatal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

■ 마무리 말씀

○ 다시 한번 의미깊은 ‘반기문평화기념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여러분 미래의 여정에 학업의 성취와 더불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함

/끝/